

게리 예이츠 박사, 12권, 26회기, 학개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학개서에 관한 26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12장에 나오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서 학개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 전에, 나는 하박국서의 이전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적용과 신학적 원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질문과 탄식과 불평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도록 도와주실 것을 본보기로 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사항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이미 선지자에게서 본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그 위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폭력과 유혈 사태가 관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을 어기고 피를 흘리며 폭력을 행하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악인을 처벌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데 종종 시간이 걸립니다.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해나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 방식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약속하신 일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개인이나 국가의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단지 믿음을 행운의 부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이 실망시켰다고 느껴질 때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의 소산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소떼를 잃더라도, 바벨론의 침략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디어와 이것에서 나오는 것, 우리는 진정한 질문이나 심지어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질문과 씨름하는 것이 종종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예배를 단지 즐거운 축하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예배는 즐겁고 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유형의 감정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경험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우리가 질문과 의심을 표현하거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시편의 주요 장르는 애가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과 의심으로 씨름할 때 종종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 항상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욥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지혜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도하고 질문하는 것이 종종 진정한 예배의 일부라는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이상화하거나 냉소주의, 회의주의 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을 우리 문화에 받아들이는 일을 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믿음, 신뢰보다 지적으로 더 정직합니다.

의인은 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의심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구적인 의심의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성향을 갖고 신앙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문화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제기하는 의심은 근본주의의 무뚝뚝한 답변만큼이나 피상적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esterton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우리 문화 시대 이전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를 T로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엉뚱한 곳에 있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야망의 기관에서 옮겨져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신념의 기관에 정착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만 진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겸손해서 구구단을 믿을 수 없는 인류를 만드는 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종 나는 그런 종류의 피상적인 의심, 냉소주의, 회의주의를 봅니다. 그것이 대중적인 기독교 문헌이든, 오늘날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이든, 때로는 교회의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적으로 더 정직합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그 회의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박국이 자신의 질문과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냉소적인 성향을 갖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에서 이 개념을 제거해 봅시다.

예배에는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의 의심을 처리하며 그러한 것들과 씨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박국서의 결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12장에 나오는 포로 이후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소개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개서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고, 이어서 스가랴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BC 520년에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과업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성전은 필수적입니다.

나는 구약이 결론을 맺고 끝맺는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역사적 개관은 포로기 이후로 끝난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바벨론 포로의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위탁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면에서 바빌론 유배는 구약성서의 궁극적이고 가장

큰 신학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우리 신들보다 위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런 것들에 충실할 것인가?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이야기의 끝입니까? 포로기 이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시 땅으로 인도하시는 기간으로서, 여러 면에서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믿었던 낙담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끔찍한 심판이 있는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구약성경 이야기의 끝은 모세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방식으로 실제로 끝납니다.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 영원히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복귀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있어서 바벨론과 앗수르 열국을 사용하여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주변 열국을 사용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상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대왕을 회복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그분이 하느님의 기름부음받은 자, 즉 메시아임을 알려 줍니다. 고레스와 주님의 관계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야훼께 헌신한 자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 바벨론 왕과 맺으신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왕을 사용하십니다.

키루스와 페르시아는 궁극적으로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아시리아인들을 대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인들이 바빌로니아인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을 점령할 때 조서를 내릴 것입니다.

이 법령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인 외국인과 정복자들을 허용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더 큰 관용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는 구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의 포고령은 에스라 1장과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포고령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의 구약 정경의 결론인 역대기의 결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바사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대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며, 그 귀환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키루스는 538년과 537년에 유대인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반환은 그 직후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귀환에 포함될 핵심적이고 중요한 두 지도자는 페르시아가 임명한 바벨론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포로 이후 공동체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될 여호수아입니다. 첫 번째 귀환의 주요 성취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환은 거의 한 세기 후인 기원전 458년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가 될 것입니다. 서기관이자 율법 교사인 에스라는 주로 백성의 종교적, 영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돌리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3차 귀환의 3단계는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 유다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생존 가능한 성읍이 되도록 이끄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은 이번 첫 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520년에 하나님은 학개를 부르시고 그 직후에 시드기야를 부르십니다.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기원전 536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지난 15~16년 동안 포기했던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으로 돌아와 처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자원 부족, 재정 부족, 자신의 집을 짓고 생존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감, 특히 그 땅 내에서 반대하는 적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살아나는 백성이 되자 결국 이 일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으로 돌아와서 정력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은 중도에 빠졌고 그들은 자신의 집, 자신의 우선순위, 자신의 가치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며,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가치관을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부르라는 한 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되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백성을 불러 건축하라고 한 후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재건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5년에 걸쳐 격려하고 마침내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된다.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의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에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을 인하여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 성전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린 지 여섯째 해 아달월 삼일에 끝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한 방식에 대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단지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에는 일련의 다섯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520년 8월, 그는 사람들에게 건축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안에, 모아야 했던 자원과 이 모든 것의 관료주의를 고려하면 꽤 놀라운 일입니다. 약 3주 안에 사람들은 순종하고 선지자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부분은 신약성서의 관점에서 이 책의 적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했습니까? 이 책은 우리 교회 신도들에게 1,800만 달러를 들여 예배 시설을 지으라고 권하고 싶을 때 끌고 가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순한 모임 장소 그 이상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이었습니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누리고, 그분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66장,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느니라.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임박한 하나님도 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가까이 계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는 먼저 성막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의 축복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의 농업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적을 물리친 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성전에 있을 수 없을 때 사슴이 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목말라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신의.

시편 84편은 매년 세 절기와 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순례자들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전 처마 밑에 등지를 트는 작은 새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의 수천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짧은 순간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시편을 숭배하는 자들의 소망은 시편에 여러 번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왕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 의도하신 모든 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것은 그 건물이 폐허인 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사람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 맞서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건물과 구조물은 주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결여된 것입니다. 이것의 비극과 그들이 행한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이후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하에는 갱신과 회복의 필요성과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렌즈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 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한 구절에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예배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성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모금을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포로 생활 이후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의 우선 순위와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순위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개서에 나오는 다섯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통일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주님은 1장 2절에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기원전 520년 9월에 전달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약 15년 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이름과 칭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여기에 있는 메시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군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의 백성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와 페르시아의 권위 아래 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실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온전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에게서 나올 메시지는 이 메시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538년에 경험했던 귀환을 넘어서는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책의 시작 부분에는 왜 성전을 짓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라, 네 길을 고려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장 5절과 7절에 나타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15년 동안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닥친 재앙과 축복의 결핍을 보십시오. 당신의 길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2장 15절과 18절에서는 같은 표현이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당신이 이 시점부터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번영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한 대조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 13절과 2장 4절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강력하고 생존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두 번 사용되는 또 다른 표현인 2장 6절, 2장 21절에서 주님은 “내가 다시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가져올 강력하고 강력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좌에는 다윗 왕조가 없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그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통합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 생각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길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이에 비추어 다섯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해야 함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작업이 중단되었고 15년 동안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예언적 장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일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어난 일에 대한 주로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예언적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520년 8월에 여호와의 집이 폐허로 된 동안 너희가 판넬로 지은 집에 거주할 때가 되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길을 생각하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먹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술을 마시지만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옷을 입었지만 아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품삯을 받는 자는 그것을 구멍 난 자루에 넣느니라.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재정적 축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아닌 언약의 저주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빼앗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산을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길을 신중히 생각하라.

당신은 판자로 된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되고 미완성된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지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해석적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 표현, 패널 하우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ESV에서 번역된 방식으로 볼 때 아마도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패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 세포님(sephonim)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널이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가 열왕기상 6장에서 왕궁이나 상당히 호화로운 숙소, 심지어는 성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호화로운 패널 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 이후의 공동체는 대부분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제로 패널하우스를 지었나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22장에서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해 개조하고 재건한 것과 같습니다.

세포님(sephonim)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단순히 천장이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집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사용법을 기준으로 보면 paneled가 아마도 여기서 올바른 해석이거나 이 용어를 올바르게 읽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백성의 집이나 숙소라기보다는 총독이나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호화롭고 호화로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할 관심보다 이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다시 언약의 저주가 유효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에 보답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들은 종종 형벌이 범죄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적절한 상호 응답입니다. 그래서 4장과 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카레브. 그러면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이 카레브에 있고 황폐하였으므로 내가 유다 땅에 가뭄 곧 카레브를 내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땅과 언덕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움트는 때에 사람과 짐승과 그들의 모든 수고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포로 이후의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앗수르 위기와 바벨론 위기에서 이야기했던 동일한 문제들 중 일부는 12장에서도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곡식의 박탈에 대해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이 최종 해결책은 아닙니다.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온전한 복귀나 온전한 회복의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것의 종말론적 완성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때입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2절부터 15절에 그것을 반영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청종하여 재건을 시작하니라” 그래서 3주 안에 그들은 자원을 모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놀라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글썄요, 여러분이 12장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면 여기서 놀라운 점은 순종, 회개, 응답의 예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개념은 12장에서 통일된 주제 중 하나이지만 호세아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예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 2장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회개와 귀환의 예와 일종의 놀라운 예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예가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입니다. 백성은 이에 반응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우며 이 과정 내내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첫 부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로 법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주도권이 서로 우선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며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성경적 개념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하였는데,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사람들은 응답합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체하시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학 체계를 생략하거나 신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 사이의 신학 체계를 무시하는 균형 잡힌 행위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응답, 즉 세 번째 메시지에 재건되는 두 번째 성전인 성전의 영광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일어난 일 중 하나는 그들이 536년에 기초를 놓았을 때 실제로 주변에 있었고 솔로몬 왕의 화려함과 위대함,

아름다움과 광채를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놓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부와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업을 재개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너희는 다 강건하라 하였느니라 이 땅이 말하노라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절에 보면 이 성전의 옛 영광을 본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남았느냐? 알았어, 응, 봤어. 일부 노인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집은 상당히 작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2장에서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을 8절에서 말씀하시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실제 건물과 둘째 성전에 건축된 것을 말하면, 그 건물의 영광은 그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재건축하고 증축한 결과로 일어난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롯 시대에 건물의 화려함은 확실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순결함과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 관해 말한 내용은 실제로 헤롯의 회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서기 70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두 번째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성전의 영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약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단지 실패한 예언의 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개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단순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일종의 이상적인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성구들과 구약성경에 있는 다른 예언 본문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재건되고 회복될 종말론적 왕국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종말론적 왕국 동안.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건물과 둘째 성전의 영광이 종말론적 성전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자, 선지자가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전의 옛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학개의 신탁에는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과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된 두 번째 성전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입니다.

비록 두 번째 성전도 AD 70년에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미래의 종말론적 성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예언서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종말론적인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더 큰 영광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을 훨씬 더 즐겁게 즐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자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일부라고 말하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과 이사야 56장과 같은 구절을 다시 한 번 믿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미래의 성전과 이 성전이 종말론적 왕국에 존재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약속이 있습니다. Richard Hess는 자신이 쓴 기사인 과거에 쓰여진 미래에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인 성전과 문자적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고대 근동 전역의 선지자들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건 앗수르이건 어디에서건 그 사건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 아시리아 선지자가 왕이 나가서 적들에게 승리를 거둔 것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 근동 예언을 읽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에스겔 40~43장의 새 성전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구체적인 치수와 세부 사항을 읽을 때, 이러한 세부 사항은 우리가 실제 구조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쿰란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주류 유대인이든 다양한 유대 민족과 유대 집단의 기대는 종말론적인 성전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이사야 56장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미래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관해 많은 의견 차이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다른 예언서와 연결될 때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적 비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약성서에서 그것을 제쳐두거나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 나는 아마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약속의 관점에서 일차적인 강조점은 성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때때로 세대주의 종말론과 그것이 이 모든 세부 사항에 흡수되는 방식이 때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강조점은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을 때 성전에서 기대했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궁극적으로 성전을 대신하는 예수의 신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은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전을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신약성서는 성전의 교체와 단순한 구조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들의 약속과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문자 그대로의 성전을 종말론적 미래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경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 때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도 없다. 그래서 학개에게 돌아가서 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세 번째 메시지에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와 모든 것에 관한 이러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것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동안 격려하는 것임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장 10절부터 19절에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네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재건 과정이 진행된 지 3개월 후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읽고 세부 사항을 볼 때 구약의 정결 의식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이 중 일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넣고 그 접힌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모든 음식물에 접촉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이까? 그러자 제사장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완전하게 보려면 레위기 6장 27절의 율법을 보면 됩니다. 옷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성별된 고기는 그 옷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긴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그 옷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물교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물교훈의 두 번째 부분은 대조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학개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이것들 중 어느 것에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예, 그것은 부정해진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19장과 레위기 22장과 같은 구절에서 정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제시하는 모세 율법의 율법과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정한 경우, 사람이 시체나 시체와 접촉한 경우 부정한 것, 그 부정함은 원래의 물건에서 그것과 접촉한 물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사제적인 질문과 토론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에 실패함으로써 순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의식의 부정함은 의복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순결을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실패하고,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곧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일과 성전에서 하는 일이 끝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예배와 희생과 헌신과 행위가 다 더러워졌느니라.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미완성된 성전은 사회를 부패시키고 불결하게 만든 시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격려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재건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부터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더럽혀진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은 1장에서 궁핍과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길을 생각하고, 차이점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동시에 전해진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현재 페르시아가 임명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학개 2장 21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에 강림하여 우리와 번개와 땅의 진동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하라 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왕국들의 보좌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멸하며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내려가리라. 그 날에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칼로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느니라. 내 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취하여 인장 반지처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 재건의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보좌와 가문과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다윗의 왕이나 통치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페르시아 치하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권위의 지위,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언을 다시 보면, 마치 예언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스룹바벨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모두 보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해 행하실 일과 그가 그에게 주신 권세와 그에게 부여하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현재에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느 날 다윗의 가계에서 나올 미래의 통치자와 미래의 왕이 있을 것이며, 메시아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은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소유하실 것입니다. 이곳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습니다. 자, 학개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나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시기를 이해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학개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서 더 즉각적인 성취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헌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스투바벨은 그것을 확증합니다.

스투바벨은 이 신탁에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언급됩니다. 인장반지는 관리나 왕, 통치자의 권위를 표시하거나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이 있는 반지였습니다. 그 인장은 점토에 새겨 문서나 편지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스투바벨을 인장반지로 세우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관계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부섭정으로 삼으셨고, 다윗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간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2장에는 이 18세 왕에게 네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가 너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리라 하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통치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권위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표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학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22장의 심판을 번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미래를 갖고 계시며, 그 미래에는 회복된 다윗 왕조가 포함될 것입니다. 스투바벨은 그 약속의 최초 성취를 상징합니다.

스가랴서에서 학개의 역할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을 부르는 것인데, 이는 단지 건물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와 예배의 우선순위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포로기 이후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왕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학개서에 관한 강의 26번입니다.